

17·18·19대 총선서 모두 승자 바뀌어 ... 당내 경선 치열

■ 누가 뭐냐

광주 복구를 선거구는 지난 17대 총선부터 승자가 모두 달랐던 광주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다.

17대에는 열린우리당 깃발을 들고 김태홍 의원이, 18대에는 통합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19대에는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 양 당 체제로 정치 지형이 바뀐 20대 총선에서는 현역인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에 맞서 더민주의 이형석, 이남재 예비 후보와 국민의당 최경환 예비후보, 무소속 노남수 예비후보 등이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북을 선거구는 고(故)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손학규 전 대표를 상징하는 예비후보들이 나서면서 현역인 임내현 의원이 이들의 도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북을은 지난 세 번의 총선에서 모두 승자가 바뀐 만큼 지역구 내의 정치 지형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공전의 향배는 물론 선거 막판까지 유동적인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현역인 임내현 의원의 탈당으로 더민주의 공천 전선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손학규 전 대표의 복심인 이남재 전 전남도 정부특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형성됐다. 친노(친노무현)-친손(친손학규) 후보가 맞붙게 된 형국이다.

우선 이형석 예비후보는 탄탄한 스펙과 인지도, 조직력 등에서 강점이 있다. 이 후보는 평범한 은행원에서 출발, 노조위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투신해 시의원과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전국 최연소 광역의회 의장(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지방의회 개혁에 힘을 쏟아 호평을 받았다.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며 국가 전반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는 한편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행정 경험과 경제 분야의 내공도 쌓았다.

이 같은 활발한 정치 활동으로 지역 내에서의 인지도가 높고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인적 네

					
정당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남재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민의당 임내현	국민의당 최경환	무소속 노남수
나이	48	54	63	56	46
역력	·전) 손학규 민주당대표 비서관 ·전) 이남연 전남도지사 정부특보보좌관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현) 국회의원 ·전) 광주고검 검사장	·전) 김대중정부 청와대 공보기획 비서관 ·현) 전남대 객원교수	·전) 광주시 시민감사관 ·현) 사광주장애인 문화협회 후원회장

더민주, ‘親盧’ 이형석이나 ‘親孫’ 이남재냐 양자 대결

국민의당, 임내현 재선 도전에 최경환 ‘뉴 DJ’ 맞서

광주시 시민감사관 출신 노남수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

트위크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난 총선 당시 북구 갑에서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강기정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한 뒤, 지역구를 북구 을로 옮긴 데 대해서는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민심 저변의 비전도 정서도 이 예비후보에게는 부담이다. 이 예비후보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이해한 전 국무총리와 각별한 관계로 알려지는 등 광주의 대표적 친노 진영 인사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잇단 국회의원 및 구청장 경선 패배 등으로 인한 지역 민심의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서는 이남재 예비후보는 야권의 심장이었던 광주 정치권이 지난 10년 동안 기득권의 늪에 빠진 것은 물론 특정 계파의 하청 정치 기지로 전락했다며 광주 정치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 신인인 이상 인지도 측면에서는 다소 밀리는 점이 있지만, 참신함과 열정을 토대로 지역 민심

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의 신진 정치세력 모임인 ‘정치 혁신한 걸음 더’를 주도하며 지역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손학규 전 대표가 야권으로 합류한 이후부터 정치적 동고동락을 함께한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계 은퇴 선언 후 강진에서 집거하고 있는 손 전 대표는 최근 이 후보 캠프를 방문, ‘꼭 승리하라’며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지 못한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대표에 대한 지역 민심도 긍정적 측면이 강해 이 후보에게 상당한 힘이 되고 있다. 동북아미래재단 등 손학규 전 대표 진영 인사들은 물론 중앙 정치권 인사들의 측면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 진영에서는, 지역 민심은 더민주의 특정 계파 패권주의 청산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점에서 공천 전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더민주를 탈당, 국민의당에 합류한

임내현 의원에 맞서 최경환 김대중 도서관 공보실장이 ‘복수후보’를 버리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에서 임내현 의원은 181표의 근소한 차이로 최 전 비서관을 따돌린 바 있다.

우선 임내현 의원은 공천 경쟁에 앞서, 국민의당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를 통과하는 일이 급선무다.

최근 천정배 공동대표는 국민의당 광주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필요하다고며 컷오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임 의원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마음을 비우고 땀땀하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 측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복구의 장기 속 원사업이었던 용봉IC 진입로 설치사업,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오지~문흥동 미개설도로 사업 등은 물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대구고검장을 역임한 법조인 출신 답게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김부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및 부유층 마약사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최경환 부총리의 취업 정략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특유의 친화력과 중앙과 지방에 촘촘히 얽힌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는 임 의원의 강점으로 꼽

히고 있다.

임 의원 측에서는 지난 4년 동안의 성실함과 진정성에 대해 지역 민심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재선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최경환 예비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출신답게 호남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광주로부터의 ‘뉴 DJ’ 바람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 후보는 국민의정부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내며 쌓은 국정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이 강점이

다. 최 후보는 김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정치와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DJ의 철학과 안목을 전수받았다. DJ 서거 이후에도 최 후보는 ‘하의도 김대중 시민캠프’를 주도하는가 하면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DJ 정신 계승에 나서고 있다.

이외로 여사와 수차례 평양을 방문, 북 측과 실무 접촉을 가졌던 최 후보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시국토론회를 개최하며 대북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인터넷 서명 운동에 나서면서 DJ의 햇볕정책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 경선에서 석패한 뒤, 4년 동안 서민적 친화력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지역 민심을 다져와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 후보 측에서는 광주 민심은 변화와 혁신을 토대로 호남 정치의 미래를 이끌 ‘뉴 DJ’를 바라고 있다며 경선은 물론 총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무소속으로는 광주시 시민감사관 출신의 노남수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

노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패배의 쓴맛을 본 뒤 이번 총선에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줄곧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갑옷을 입고 LED 피켓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바닷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국민의당, 경선 룰 적용 따라 판세 요동칠 듯

■ 관전 포인트

북구 을의 관전포인트는 공천 룰이다. 더민주나 국민의당 모두 경선 방법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룰과 시행세칙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추후 경선 시행세칙을 두고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더민주의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안심번호 도입을 기반으로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공천한다는 계획이다.

16일 더민주 이웅섭 비상대책위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더민주의 공천 룰은 안심번호 도입을 통한 100% 여론조사”라면서도 “다만 경정이 치열한

지역구의 경우, 역 선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더민주 지지자나 당원을 포함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의 일부 지역구만 공천 방법을 달리 적용하기가 어려운데다 당원을 포함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기존의 후보에게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더민주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후보들 간 대결 구도가 탄탄하게 전개되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당도 ▲여론조사 ▲당원투표 ▲속의선거

인단투표 ▲속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공천 방법은 정했지만 어떠한 룰을 적용할 것인지 아직 미지수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컷오프 여부를 둘러싼 내부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안심번호를 토대로 한 여론조사와 속의선거인단 투표를 병행하는 경선 방법을 거론하는 등 갖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북구 을에서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경선 구도는 특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떠한 룰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경선 판세도 요동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도농복합선거구 ... 31사단 이전·첨단 3지구개발 핫이슈

■ 선거구 특징

광주 복구를 선거구는 광주의 대표적인 도농(都農) 복합 선거구다. 또한, 광주 8개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인구는 30만명에 이르고, 지난 19대 총선 당시 유권자수는 23만명이었다.

행정동으로는 운암 1·2·3동, 동림동, 임동, 용봉동, 오지 1·2동, 삼각동, 매곡동, 일곡동, 양산동, 건국동 등 13개동이다. 이 가운데 건국동은 농촌지역이고, 일곡동과 동림·양산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동림동과 양산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복구를 선거구 인구가 급증했다.

현재는 건국동(첨단 2지구)도 개발중이어서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재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오지 1·2동과 임동, 용봉동 등이 이번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북구갑 선거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 주요 현안으로는 31사단 이전, 첨단 3지구 개발(광주연구개발특구), 용봉 IC진입도로 진출입 개설 등이 있다. 또한, 선거구에 있지는 않지만, 광주역 이전 문제도 현안이다. 광주역 진입 철도가 운암동과 동림동을 거쳐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 지역 민들의 민원도 상당한 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GWANGJU HEARING AID CENTE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 / 010-3608-8897